

마리 앙투아네트와 미군정

○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망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었지만

1946년 9월 모리배들의 식량 매점매석과 미군정의 식량 강제 공출로 인해 수많은 민중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군정의 식량 담당 책임자는

"쌀이 없으면 채소나 과일을 구해 먹으면 된다"는 망언을 했음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항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말이었지